

중세국어 형용사 파생 접미사 {-듭-}의 이형태 빈도와 역사적 변화

김 현*

1. 서론

중세국어의 {-듭-}은 명사나 어근에 결합하여 “(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다”는 의미의 형용사를 파생해 내는 접미사이다. 이 접미사는 어기의 말음과 어미의 두음에 따라 교체형을 보이고 있다. 즉, 어기가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ㄴ-’으로,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드외-’로 실현되며, 어기가 ‘ㄹ’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에 따라 각각 ‘-롭-’과 ‘-르외-’로 실현된다(안병희 1978:70).

{-ㄴ-}은 현대국어의 ‘-되-’, ‘-롭/로오-’의 선대형이다. 일반적으로 현대국어의 이 형태들은 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롭-’과 ‘-로오-’가 어미의 두음에 따른 이형태임은 분명하지만, ‘-되-’와 ‘-롭/로오-’가 과연 어기의 말음에 따른 이형태인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되’가 결합한 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섭(1996:176)에서는 ‘-되-’가 대부분 경음화를 일으켜 /뙤/로 발음됨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세련되-’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 박사과정

발음의 비일관성을 한 근거로 하여 이 접미사의 생산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세련되-’는 평서 종결형(* 세련되다 cf. 세련됐다)의 비교만으로도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생성된 ‘외람되-(외람되다’ 등과 같은 부류의 단어라고 볼 수가 없다.¹⁾ 즉, 현대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되/가 아니라 /봐/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접미사의 생산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음은 19세기 후반의 자료에서 /봐/가 표기에 드러난 예이다.

- (1) 망영뵈이 질박הייתי 지으리 <조군영적지 4>
그 스사로 말이 참뵈물 은 거시 <예수성교전서 요한19:35>

접미사의 음운표시가 /봐/라고 할 때에 어기의 말음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단어가 있다 : 엣되다, 쇳되다, 쟈[私]되다1, 쟈[邪]되다2. 이들의 어기는 각각 ‘애, 쇠, 私, 邪’로 보아야 할 것이며, 표기의 ‘ㅅ’은 사이시옷이 아니라 접미사의 음이 /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되-’와 ‘-롭/로오-’가 어기의 말음에 따른 이형태 자격을 중세국어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어기에 결합할 접미사 이형태는 당연히 ‘-롭/로오-’일 것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에 ‘-되-’가 결합되었다는 것은 곧 ‘-되-’와 ‘-롭/로오-’가 어기에 따라 교체하는 생산적인 접미사가 아님을 말해 준다.

이처럼 현대국어의 ‘-되-’와 ‘-롭/로오-’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라고 단정지울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미 중세국어 즉, 15세기와 16세기에서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형태 각각이 겪게 되는 역사적 변화를 각각의 이형태들이 출현하는 빈도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즉, (-듭-)이 중세국어 단계에서 겪게 되는 변화가 한 형태소가 겪는 변화라고 하기에는 각각의 이형태들이 겪는 변화가 너무나 판이함을 그

1) 본고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논의는 피한다. 이밖에도 부사에 ‘되-’가 결합하여 사전에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는 ‘못되-, 안되-’ 등이나, 동사임에도 과거 시체를 동반하여 의미상 형용사와 비슷하게 쓰이는 ‘닮-’와 같은 단어들과의 관계, 나아가 어기의 [동작성]과 관련하여 ‘세련하-’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현대국어 ‘-되-’ 파생 형용사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들의 빈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다.

2. 기초 작업 : {-듭-}과 {-답-}, {다이}의 구분

중세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듭-} 이외에 이와 유사해 보이는 {-답-}이 있으며, 역시 같은 기원을 가지리라 생각되는 {다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우선 {-답-} 및 {다이}와 {-듭-}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며, 주로 이들의 선행 요소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2.1. {-듭-}의 어기

{-듭-}의 어기는 대부분 한자어 명사이지만, 고유어 명사나 ‘새삼, 언국, 즐굽’과 같은 어근인 경우도 있으며, {-답-}의 어기보다 훨씬 다양하다. 다음 예들의 출전은 여럿 중에서 임의로 고른 것이다.²⁾

2) 본고에서 이용하는 문헌 및 약호는 다음과 같다.

15세기 중기 : 龍飛御天歌(1447)<용가> 釋譜詳節(1447)<석상> 月印千江之曲(1447)<월곡> 訓民正音諺解(1447)<훈언> 月印釋譜(1459)<월석> 楞嚴經諺解(1461)<능 엄> 法華經諺解(1463)<법화> 禪宗永嘉集諺解(1464)<영가> 金剛經諺解(1464)<금강> 阿彌陀經諺解(1464)<아미> 般若心經諺解(1464)<반사> 圓覺經諺解(1465)<원각> 牧牛子修心訣(1466)<목우> 蒙山法語諺解(1467)<몽산> 四法語諺解(1467)<사법>

15세기 후기 : 杜詩諺解(1481)<두초> 南明集諺解(1482)<남명> 金剛經三家解(1482)<금삼> 觀音經諺解(1485)<관음> 靈驗略抄(1485)<영첩> 六祖法寶壇經諺解(1496)<육조> 貞言勸供·三壇施食文(1496)<진언>

16세기 : 繢三綱行實圖(1514)<속삼> 麟譯老乞大(1517)<번노> 麟譯朴通事(1517)<번박> 麟譯小學(1517)<번소> 呂氏鄉約諺解(1518)<여씨> 二倫行實圖(1518)<이륜> 正俗諺解(1518)<정속> 訓蒙字會(1527)<훈몽> 簡易辟瘟方(1528)<벽온> 牛馬羊豬染疫治療方(1541)<우마> 分門瘟疫易解方(1542)<분문> 救荒撮要(1554)<구황>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1560)<육자> 父母恩重經(1563)<부모> 七大萬法(1569)<칠대> 光州千字文(1575)<천자-광> 百聯抄解(1576)<백련> 新增類合(1576)<유합>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野雲自警序(1577)<초발> 重刊警民編(1579)<경민> 禪家龜鑑諺解(1579)<선감> 石峯千字文(1583)<천자-석> 小學諺解(1586)<소언> 論

(2) 가. '-듭/드외-'의 어기

거죽<칠대12ㄱ> 公反<내훈2:20ㄴ> 근심<번소6:14ㄱ> 占慶<월석10:14ㄱ> 노릇<내훈1:8ㄱ> 노릇<두초16:41ㄴ> 還상<번소9:100ㄱ> 奢量<월석2:11ㄱ> 망령<번소6:17ㄱ> 痘<원각서10ㄱ> 福<두초19:48ㄴ> 부탕<번소10:10ㄱ> 分別<내훈1:73ㄴ> 새암<삼강효5> 상<월석1:43ㄱ> 시름<두초14:9ㄱ> 아당<내훈1:2ㄱ> 아름<월석17:93ㄱ> 언국<석상13:56ㄴ> 築寵<두초23:12ㄴ> 辱<석상9:8ㄴ> 웃듬<진언57ㄱ> 疑心<월석1:15ㄱ> 利益<석상9:41ㄱ> 일편<번노상41ㄴ> 精誠<능엄7:7ㄴ> 쥬변<금삼5:34ㄴ> 즐굽<석상6:9ㄱ> 忠貞<내훈2:20ㄱ> 통심<번소6:20ㄴ> 통성<소언2:18ㄱ> 통심<번소6:5ㄱ>

나. '-롭/르외-'의 어기

겨를<월석7:4ㄴ> 苦<석상24:15ㄴ> 네<두초14:32ㄴ> 바지<금삼함서13ㄱ> 보비<내훈2:2ㄱ> 常例<석상9:24ㄱ> 祥瑞<진언9ㄴ> 새<금삼3:48ㄴ> 受苦<월석14:79ㄴ> 受苦<두초7:37ㄴ> 辛苦<두초22:54ㄱ> 神奇<금삼함서4ㄱ> 아수<내훈3:39ㄱ> 荣華<두초8:64ㄴ> 와<석상6:5ㄱ> 妖怪<능엄7:88ㄴ> 유화<번소9:84ㄱ> 恩惠<두초15:15ㄱ> 義<내훈3:40ㄱ> 一體<진언14ㄴ> 慈悲<칠대20> 災害<내훈1:11ㄴ> 精微<두초24:11ㄴ> 조술<석상서4ㄴ> 종요<구황1ㄱ> 珠砂<온역13ㄴ> 智慧<관음30ㄴ> 珍寶<두초11:38ㄴ> 風流<두초14:11ㄴ> 허물<석상21:31ㄱ> 嫌疑<능엄2:123ㄱ> 豪華<내훈1:34ㄱ> 孝道<삼강효16ㄱ>

2.2. {-답-}의 어기

{-답-}은 안병희(1978), 이승녕(1981)에서는 {-듭-}의 쌍형으로 이해되었고, 신석환(1981), 이현규(1982)에서는 '、'의 유동에 의한 수의적인 변이형으로 이해되었으나, 허옹(1975), 구본관(1998)에서는 별개의 형태소로 이해되었다. 특히나 허옹(1975:203)은 접미사로서의 {-답-}과 불완전 용언(불구풀이씨)로서의 {-답-}을 구분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즉, {-답-}이 원래는 불완전

語諺解(1590)<논어> 人學諺解(1590)<대학> 孟子諺解(1590)<맹자> 中庸諺解(1590)<중용> 孝經諺解(1590)<효경>

용언이었으나, {-듭-}과 거의 같은 의미와 기능을 하는 접미사로도 쓰이고, 원래대로 불완전 용언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어서 {-듭-}과의 기원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구본관(1998:182~5)에는 네 가지 근거를 들며 {-답-}과 {-듭-}이 다른 요소임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 의미에 있어서 전자는 “如”, 후자는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이라는 점, 둘째 전자만이 句를 어기로 가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전자에서 파생된 ‘-다이’와 후자에서 파생된 ‘-드이/르이’의 의미 기능이 다르다는 점, 넷째 ‘-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 (3) 가. 置고 간다^뿐 道理<월석1:18> 凉 간다을 랑<천자 광38>
 - 나. 各各 제여곰 곳다오니라<금삼4:53> 머지 곳답도다<두초15:23>
 - 다. 속결업시 저히며 아름답도다<남명하14> 그 명절을 아름다이 너겨 <번소9:66>
 - 라. 고지 아롯다온 雜 남기 迎逢^흐고<두초6:12>
- (4) 가. 나호매 니르런 端正호미 法다오더<관음34> 法다이 行호물<영가 하51>
 - 나. 實다온 言教로^빠<선감12> 如來三界相^을 實다비 아라보아<월석 17:11>
 - 다. 네다온 풍속액 일로 서르 사파며<번소9:18> 슬허흡을 네다이 흐 야<속삼효32>
 - 라. 嚴^흐고 거여우며 모나고 경답거늘<소언6:4> 겨집은 유순호더 正 다이 흐며<소언2:75>

(3)은 어기가 고유어인 예이며, (4)는 한자어인 예이다. (3가)의 {간답-}은 용례가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으나 천자문의 예로 보아 “涼”的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어기인 ‘간’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련어휘를 찾을 수가 없기에 어근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3나)의 {곳답-}은 “香”的 의미인데, 어근인 ‘곳’을 ‘꽃(花)’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조와 그 의미에서 그러한데, {곳답-}인 去平인 반면 ‘꽃’은 平聲이다. 의미적으로는 ‘고스-, 웃고순, 웃고시, 웃꽃흐-’ 등과 有緣한 듯하나 이들의 ‘꽃’ 역시 平聲으로 성조면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로서는 어기 ‘꽃’은 “香”을 의미하는 어근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다)의 {아름답-}은 “美”的 의미인데, ‘아름’ 역시 관련어휘를 찾을 수 없다. 간혹 이 단어의 어기를 {아름답/드외-}의 어기와 같은 것으로 파악한 논의들이 있는데, 후자의 ‘아름’은 “私”를 의미하는 명사임을 간과한 것이기에 타당치 못하다.³⁾ 즉 {아름답-}의 어기 ‘아름’은 (3라)의 ‘아릇’과 함께 “美”를 의미하는 어근이라 할 것이다.

(4가)의 {法답-}은 “合法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간혹 다음과 같이 선행 요소가 명사구인 듯한 예가 보이기는 한다. 다음은 구본관 (1998:183 주14)에서 명사구로 해석하고 있는 예이다.

(5) 先王의 법다온 오시 아니어든 敢히 넘디 아니흐며 先王의 법다온 말숨이
아니어든 敢히 니른디 아니흐며 先王의 어딘 헝실이 아니어든 敢히 헝티
아니흘디니(非先王之法服이어든 不敢服흐며 非先王之法言이어든 不敢
道흐며 非先王之德行이어든 不敢行이니)<소언2:30->

(5)의 ‘先王의 法’이 ‘다온’의 선행 요소라면, 그 원문은 아마도 ‘非如先王之法服, 非如先王之法言’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보다는 ‘法服’, ‘法言’,⁴⁾ ‘德行’이 ‘법다온 옷’, ‘법다온 말숨’, ‘어딘 헝실’로 번역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고, 이때의 {-답-}은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4나)의 {實답-}은 “실제로 그러하다, 실제로 존재하다” 정도의 의미인 듯 하다. 어기인 ‘實’이 중세국어에서 명사로 쓰이는지는 의문이다.⁵⁾ (4다)의 {禮답-}은 “예의에 맞다”, (4라)의 {正답-}은 “올바르다” 정도의 의미인 듯하다.

정리하면, {-답-}의 어기는 고유어 어근 또는 1음절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고유어 어근은 독립적으로 쓰인 예나 관련어휘를 찾을 수 없기에 어근임

3) 나조희 깃거흐는 萬物은 제여콤 아름드외도다(欣欣物自私)<두초14:38->
각각 제 스량흐느니를 일편도이 흐며 각각 제 듯는 거슬 아름도이 흐아(偏愛私藏)<번
소7:41->

4) 현대국어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뜻풀이된다(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法服 : ①제왕의 예복. ②법관, 검사, 변호사가 법정에서 입는 옷. ③[불] = 법의.
法言 : 법도가 될 만한 말.

5) ‘圓通이시다 흐느니 實엔 흐나뿌니라<석상21:19-7> 양지 비록 곤흐나 도르혀 實 아
니니라<남명27-7>’와 같은 예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實’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인지, 그리고 구어에서도 그러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음절 한자어는 실제로 명사로 쓰이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한자어의 속성상 관련어휘를 찾을 수는 있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답-}의 어기와 {-듭-}의 어기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다만 다음의 예가 그 경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6) 욕드^빈 일와 슬픈 일와 시름다^본 이리 다왜댓거든<석상9:8ㄴ>

이와 더불어 禪宗永嘉集譏解에 ‘시름다와’의 오기로 보이는 ‘시름나와<하 108ㄱ>’가 있다. 이밖에 {-답-}과 {-답-}이 혼동을 보이는 예는 없는 듯하다. 기원적으로 이 두 접미사는 공통의 기원을 가지리라 생각이 된다(이승녕 1956 참조). 의미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계적인 현상은 나타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이 둘의 구분은 매우 엄격하여, 어기가 ‘시름’인 경우에나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일 뿐이다.

2.3. {다이}의 선행 요소

{다이}는 ‘**다**’이 비음운화하기 이전의 ‘**다비**’와 이후의 ‘**다이**’를 아우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7) 가. 제 모술 다이 흐야<영가하74ㄱ>

상네 어루 뜯 다이 흐야<원각서77ㄱ>

種性 다비 가초<월석13:52ㄱ>

眞如는 眞性 다비 變티 아니흘씨라<월석8:29ㄴ>

가'. 말 다비 修行호터<월석13:53ㄴ>

가'.느의 다른 뜯 업슬식 次第 다이 알펐 네 段을 브터 科흐노니<원각
상1-2:190ㄴ>

祭祀를 家禮 다이 하며<속삼효26ㄱ>

온가짓 이리 사르민 계교 다이 도의디 아니흐느니라<번박64ㄱ>

나. 經 듣고 뜯 아래 ㄻ르치삼 다이 行 닷고<금강하96ㄴ>

다. 世尊勅호산 다비 다 奉行 흐수보리니<월석18:19ㄱ>

알핀 許 흐산 다이 흐쇼서<법화2:138ㄴ>

이들의 {다이}는 절대로 ‘다온, 담고’와 같은 형태를 보이지 않고 ‘다이’로 형태가 굳은 것들이다. (7가)는 선행 요소가 명사 또는 명사구인 예로서, 첫 예인 ‘제 득숨 다이’의 구조를 [[[제[득숨]N]NP다이]]_{ADVP}로 분석한다. (가')은 선행 요소의 종성이 ‘ㄹ’인 경우이고 (가")은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로서, {-듭-}과는 달리 선행 요소의 말음에 따른 제약이 없음을 보여 준다.

(7나)는 선행 요소가 용언의 명사형이며, (다)는 관형사형인 예로서, 그 수는 매우 적어 위의 예가 발견되는 전부인 듯하나, {다이}가 {-답-}과는 전혀 다른 형태소임을 보여주는 강한 근거가 된다. {-답-}의 접미사이기 때문에 선행 요소로서 용언의 활용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의 측면에서 볼 때, (7)의 예들은 “~와 같이, ~에 따라”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 보인다. 같은 의미를 가지며, 명사구와 용언의 관형사형에 후행하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다이}는 부사성 의존 명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언의 관형사형은 동명사형에서 기원하므로, {다이}는 명사구 또는 명사 상당어구에 결합하면서 “如”的 의미를 갖는 용언 (*답-)의⁶⁾ 파생부사 또는 부사형에서 굳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3. 이형태의 빈도

본고는 중세를 다시 셋으로 구분하였다. 두시언해 이후의 15세기를 15세기 후기라 하여 따로 구분한 것이다. 이하에서도 드러나겠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15세기 중기와는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5세기 중기의 자료 약 41만 어절, 15세기 후기의 자료 약 15만 어절, 16세기의 자료 약 16만 어절, 총 약 72만 어절의 전산화된 자료를 검색한 후 다시 수작업으로 파생형용사와 파생부사를 추려 내었다. 다음 표 및 이하의 기술에서 '-도외/로외-'는 '-도외/로외-, -도이/로이-, -도의/로의-, -도의/로

6) (*답-)의 존재를 15세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法華經譜解의 ‘體相性分大小 大 와(如體相性分大小 허야) 저쥬미 허가지로터<3:37ㄴ>’가 유일한 예로 보이는데, 이 ‘다와’를 {-답-}의 활용이라고 보기에는 선행요소가 너무나 특이하다고 생각된다. 의미 역시 {-답-}보다는 {다이}에 가까워 “~과 같다”로 생각된다.

이-' 등 접미사의 1음절이 원순모음인 것을 아우른다. '-로오-'는 '-로온, -로와' 등의 어간을 가리키며, '-ㄹ오-'도 포함시켰다.

파생형용사					파생부사			
1음절 비원순			1음절 원순		비원순		원순	
	-듭-	-드비-	-드외-	-롭-	-도외-	-드비	-드이	-도이
15C 중기	1	14	14	0	0	7	1	1
15C 후기	1	0	21	0	1	0	3	4
16C	0	0	9	0	22	0	0	15
15C 중기	12	57	46	0	0	5	18	1
15C 후기	2	0	117	31	52	0	17	59
16C	0	0	3	24	13	0	0	28
	-롭-	-르비-	-르외-	-롭-	-로외-	-르비	-르이	-로이

빈도의 차이가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우연적인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10개 중의 1개와 10개 중의 5개는 10% 對 50%로서 그 차이가 현격해 보이지만,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1000개 중의 100개와 1000개 중의 500개는 똑같이 10% 對 50%이지만, 모집단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인정될 수가 있다. 이처럼 빈도의 비교는 모집단의 크기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의수준을 1%로 하고, 다음의 식으로 검정통계량(Z)을 구하여, 그 유의확률과 유의수준을 비교하여 빈도 수치의 유의미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빈도 p_1 은 X/n_1 이며, 빈도 p_2 는 Y/n_2 이다.

$$Z = \frac{p_1 - p_2}{\sqrt{p(1-p) \times \left(\frac{1}{n_1} + \frac{1}{n_2}\right)}} \quad p = \frac{X+Y}{n_1+n_2}$$

유의수준이 1%일 때의 검정통계량은 2.57이며, 검정통계량이 그 이하의 값일 경우 유의확률은 그보다 작게 되어 빈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게 된다.

3.1. '-듭-'과 '-롭-'의 빈도

'-듭-'은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어미 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듭-'이 나타나는 것은 (8)의 두 예뿐이다.

- (8) 상네 겨샤미 아니신가 疑心듭거신마론<법화5:135~>
쥬변듭고 쪼 쥬변드외니<금삼5:34~>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자료의 제약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어미의 수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듯도 하다. 즉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비해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狎-'의 수는 너무나 적은 듯해 보이며, 이는 '-롭-'의 빈도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다. 물론 '-롭-'도 '-ㄹ외-'에 비해 적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드외-'에 대한 '-狎-'보다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 (9) 가. 15세기 중기 '-狎-'의 빈도와 '-롭-'의 빈도

狎	1/29	롭	12/115
狎+드복+드외	0.0344(p ₁)	롭+ㄹ복+ㄹ외	0.1043(p ₂)

- 나. 15세기 후기 '-狎-'의 빈도와 '-롭-'+'-롭-'의 빈도

狎	1/23	롭+롭	33/208
狎+드외+도외	0.0434(p ₃)	롭+롭+ㄹ외+로외+로오	0.1586(p ₄)

다. 16세기 '-돕-'의 빈도와 '-롭-'+'-롭-'의 빈도

돕	0/31	롭	24/131
돕+드외+도외	0(p ₅)	롭+르외+로외+로오	0.1832(p ₆)

(10) 중세국어 '-돕-'의 빈도와 '-롭-'의 빈도

돕	2/83	롭+롭	69/454
돕+드외+도외	0.0240(p ₇)	롭+롭+르외+로외+로오	0.1519(p ₈)

(9가)의 p_1 과 p_2 는 약 3%와 10%로서 그 차이가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되나, 통계적으로는 검정통계량이 1.17로서 무의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나)는 이보다는 더욱 차이가 나서 약 4%와 16%의 빈도를 보이지만, 검정통계량은 1.71로서 여전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9다)는 검정통계량이 2.58로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 15세기 중기에서 16세기에 이르도록 검정통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밀해 '-돕-'의 빈도와 '-롭-'+'-롭-'의 빈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0)은 이 세 시기를 모두 합한 것으로서 p_7 은 약 2%, p_8 은 약 18%라는 차이를 보이며, 모집단이 커진 만큼 검정통계량도 커져서 3.16을 나타낸다. 즉, p_7 과 p_8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중세국어 전체적으로 보면 '-돕-'과 '-롭-'+'-롭-'이 빈도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가 있다.

현재로서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어미 중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모음 또는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빈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소략하게나마 표본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어미의 token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를 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보다 정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위의 빈도 비교는 '-돕-'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는 {-돕-}의 이형태 중 '-롭/르외-'와는 달리 '-돕/드외-'가 '-드외-'쪽으로 단일화되어 가는 것이 실제로 이형태의 빈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9나)에서 15세기 후기의 '-롭-'의 빈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15세기 후기의 '-롭-'이 '-롭-'에서 원순모음화된 어형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인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표의 수치를 보면, '-롭/ㄹ외-'에 대한 '-롭-'의 빈도는 15세기 중기에 비해 15세기 후기에 매우 작다.

(11) 15세기 중기 '-롭-'과 15세기 후기 '-롭-'의 빈도

롭 15세기 중기: 12/115 0.1043(p₁)

롭+ㄹ외+로외 15세기 후기: 2/119 0.0168(p₂)

p_1 과 p_2 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이다($Z=2.82$). '-롭-'이 15세기 후반에 줄어들었다는 문제의 실마리는 '-롭-'에 있다. 15세기 후기에는 '-롭-'이 31번 나타나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이다. 그리고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로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15세기 후기에 현대국어와 같이 /롭/~/로오/의 교체를 보이는 '-롭/로오-'가 존재하며, '-롭-'은 그 이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5세기 후기의 '-로오-'는 단 6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만일 이때의 '-롭-'과 '-로오-'가 '-롭/로오-'의 이형태였다면, 이형태의 출현 빈도는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도 살폈듯이 어미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비율은 매우 작다는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롭/로오-'의 이형태 '-로오-'가 6번 나타난다면, 이형태 '-롭-'은 많아야 1번 정도만 나타날 것인데, 15세기 후기의 '-롭-'은 31번이나 나타나는 것이다. 즉, 자음 어미 앞에 나타나는 '-롭/로오-'의 이형태로 보기에는 '-롭-'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돕-)의 이형태 '-롭-'이 원순모음화를 겪은 어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15세기 중기 '-롭-'의 빈도와 15세기 후기 '-롭-'+'-롭-'의 빈도가 의미없는 차이만을 보인다는 점에서 근거를 얻는다.

(11') 15세기 후기 '-롭-'+'-롭-'의 빈도

롭+롭

33/202 0.1633(p₃)

롭+롭+로외+로외+로외

p_1 과 p_3 의 차이는 모집단이 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기 힘들다($Z=1.44$). 다시 말해 15세기 중기의 '-롭-'은 15세기 후기에서 그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되, 상당수가 원순모음화를 겪어 '-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롭-'은 '-롭/로오-'는 무관하게 단순히 {-듭-}의 한 이형태인 '-롭-'이 음변화를 겪은 것이며, 이후 16세기에 /롭/과 /로오/로 교체하게 되는 '-롭/로오-' 생성의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2. '-롭/롭/로외/로외-'의 빈도와 '-롭/로오-'의 등장

앞 절에서 우리는 {-듭-}의 이형태 '-덥/드외-'에서 '-덥-'의 빈도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덥/드외-'가 '-드외-'로 단일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았다. 본 절에서는 '-롭/로외-'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롭/로오-'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역시 이형태의 빈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의 이형태 '-덥/드외/도외-'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의 이형태 '-롭/롭/로외/로외-'의 상대적인 비율이 15세기와 16세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12) 15세기 '-롭/롭/로외/로외-'의 빈도와 16세기 '-롭/롭/로외/로외-'의 빈도

롭+로외+로외+롭+로외

15세기: 317/369 0.8590(p_1)덥+드외+도외+롭+로외+로외 16세기: 40/71 0.5633(p_2)

15세기에는 '-덥/드외/도외-'가 약 14%, '-롭/롭/로외/로외-'가 약 86%였던 비율이 16세기에는 전자가 약 44%, 후자가 약 56%로 달리 나타나고 있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Z=5.83$).⁷⁾ 즉, '-롭/롭/ㄹ외/로외-'가 16세기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것은 '로오'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롭/롭/ㄹ외/로외-'가 줄어든 만큼 '-로오-'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 의문을 (12)의 식에서 분모와 분자에 16세기의 '-로오-'를 더하여 산출된 빈도와 15세기의 빈도 p_1 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12') 16세기 '-롭/롭/ㄹ외/로외/로오-'의 빈도

롭+ㄹ외+로외+로오

131/162 0.8086(p_3)

듭+드외+드외+돕+도외+롭+ㄹ외+로외+로오

p_1 과 p_3 은 검정통계량 1.47로서 빈도의 차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15세기 '-롭/롭/ㄹ외/로외-'의 비율과 16세기 '-롭/롭/ㄹ외/로외-'+'-롭/로오-'의 비율이 80%대에서 거의 일치를 보인다는 것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하여 파생된 형용사의 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일부가 '-롭/로오-'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파생부사인 '-른비/른이/로이'도 16세기에서 줄어들어 보인다.

(13) 15세기 '-른비/른이/로이'의 빈도와 16세기 '-른비/른이/로이'의 빈도

른비+른이+로이

15세기: 100/116 0.8620(p_1)드비+드이+도이+른비+른이+로이 16세기: 28/43 0.6511(p_2)

p_1 과 p_2 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Z=2.98$). 그러나 16세기 '-롭/롭/ㄹ외/로외-'의 감소가 '-롭/로오-'의 등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로

7) 16세기의 '-롭-'은 (-듭-)의 이형태가 아니라 '-롭/로오-'의 이형태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음어미 앞의 '로오'의 용례가 85(+6)이므로 자음어미 앞의 '-롭-'의 용례는 약 5~9 정도는 될 것이다. 이들을 계산에서 뺀다면, 16세기 '-롭/롭/ㄹ외/로외-'의 빈도는 더 줄어들 것이다(약 0.5156).

이'는 감소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는 추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롭-}의 파생부사 역시 '○○로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13)이 보여주는 것은, (12)의 '-롭/롭/ㄹ외/로외-'와 마찬가지로 '-로이'도 16세기에서 줄어들었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15세기 중기 혹은 후기, 또는 특정 문헌에서 이들 'ㄹ'계⁸⁾ 'ㄷ'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쓰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시기에서 'ㄹ'계가 지나치게 많이 쓰였다면, 15세기와 16세기의 'ㄹ'계의 빈도를 비교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15세기 중기와 후기, 16세기 각각의 'ㄷ'계 對 'ㄹ'계의 비율이다.

(14) 15세기 중기 'ㄹ'계와 15세기 후기 'ㄹ'계, 16세기 'ㄹ'계의 빈도

'ㄹ'계	15세기 중기(139/177)	15세기 후기(284/314)	16세기(159/205)
'ㄷ'계+ 'ㄹ'계	0.7853(p ₁)	0.9044(p ₂)	0.7756(p ₃)

p₁과 p₃은 거의 같은 값을 보이지만 p₂는 훨씬 높은 값을 보인다. p₁과 p₂의 차이는 검정통계량 3.67로 통계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차이이다. 우리의 관심은 'ㄷ'계와 'ㄹ'계의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ㄹ'계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의 수가 변동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ㄷ'계 對 'ㄹ'계의 비율 자체가 두드러지게 판이한 15세기 후기를 15세기 중기, 16세기와 동질적으로 다를 수는 없다. 15세기 후기에 'ㄹ'계가 이처럼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자료의 일탈성이라는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2)와 (13)의 통계는 다음과 같이 15세기 중기와 16세기를 비교할 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8) 이하에서는 파생형용사와 파생부사를 통틀어서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에 결합하는 이형태들 '-듭/듭/드비/드외/도외-', '-드비/드이/도이'를 'ㄷ'계라고 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에 결합하는 이형태들 '-롭/롭/ㄹ비/ㄹ외/로외/로오-', '-ㄹ비/ㄹ이/로이'를 'ㄹ'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15) 가. 15세기 중기 '-**롭**/롭/ㄹ외/로외-'의 빈도와 16세기 '-**롭**/롭/ㄹ외/로외-'의 빈도

롭+ㄹ외+로외+롭+로외	15세기 중기: 115/144 0.7986(p ₁)
돕+드외+드외+돕+도외+돕+ㄹ외+로외+롭+로외	16세기: 40/71 0.5633(p ₂)
나. 15세기 중기 '- ㄹ비 /ㄹ이/로이'의 빈도와 16세기 '- ㄹ비 /ㄹ이/로이'의 빈도	
ㄹ비+ㄹ이+로이	15세기: 24/33 0.7272(p ₃)
드비+드이+도이+珑비+珑이+로이	16세기: 28/43 0.6511(p ₄)

(15가)의 p₁과 p₂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이지만($Z=3.61$), (15나)의 p₃과 p₄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Z=0.29$). 즉 15세기 중기에 비해 16세기에는 '-**롭**/롭/ㄹ외/로외-'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珑비**/珑이/로이'는 그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2')의 p₃(0.8086)과 (15가)의 p₁(0.7986)이 거의 같은 수라는 것은 16세기의 '-**롭**/롭/ㄹ외/로외-'와 '-**롭**/로오-'를 합친 것이 15세기 중기의 '-**롭**/롭/ㄹ외/로외-'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며, 15세기 {-**돕**-}의 이형태 중 일부가 '-**롭**/로오-'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로이**'의 수가 유지되는 것은 '-**롭**/로오-'의 부사파생 역시 '-**로이**'임을 말해 준다.

4. 역사적 변화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이형태 교체를 하는 형태소는 그것이 비록 비자동적인 것일지라도 예외없는 교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듣**-}은 자음 앞에서는 /듣/으로, 모음 앞에서는 /들/(또는 /드르/)로 비자동적이기는 하나 예외없이 정연한 교체를 보인다. 그러나 {-**돕**-}은 예외적인 이형태 교체가 나타나는데, '-**돕**-'과 '-**롭**-'이 쓰여야 할 위치 즉,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드외**-', '-**珑외**-'가 쓰인 예들이 보이는 것이다.

- (16) 가. 妥量드비오<월석2:11ㄱ> 시름드외도다<두초15:30ㄴ, 22:38ㄱ> 아름
드외도다<두초14:38ㄴ> 驁드외도다<두초19:16ㄱ> 쥬변드외도다<금삼
5:20ㄱ> 아당도의고<번박25ㄱ> 겨르르외오<두초20:16ㄴ> 새르외도다
<금삼5:27ㄴ> 외르외디<남명하10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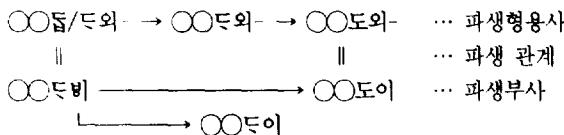
이들은 대부분 15세기 후기에 발견된다. 그 원인을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이는 '-듭/드외-'와 '-롭/르외-'에 모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자는 '-되-'로, 후자는 '-롭/로오-'로 각기 서로 다른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 다만 어미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가 예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이를 교체를 지배하는 제약 또는 규칙이 매우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구본관(1998:197)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형태들이 각기 다른 역사적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⁹⁾

'ㄷ'계 변화의 종점은 '-도외-'와 '-도이'이다. 15세기 중기와 후기까지만을 본다면, '-드외/도외-'에 비해 '-듭-'이 적게 나타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비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이형태의 역사적인 변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오면 '-듭-'은 매우 위축되어서, 어미의 비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15세기 중기와 후기, 16세기를 통틀어 중세국어 전체적으로 보면, '-듭-'이 어미의 비율과는 무관하게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이는 '-듭/드외-'의 교체를 하던 이형태가 '-드외-' 쪽으로 단일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생부사는 (○○듭-)에 부사 파생 접미사 {-ㅣ}가 결합하여 '脩'이 존재하던 15세기 중기 일부 문헌에는 '-드비'로 나타났으나, 곧 '-드이'와 '-

9) '-드외-, -르외-'가 '-듭-, -롭-'이 쓰일 환경에 나타나는 일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이는 이형태의 수를 제한하고자 한 언어보편적인 제약에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만일 '-듭-, -롭-'이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쓰이려면,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드오-, -르오-'와 같은 꼴로 쓰였을 것이다. 즉 이형태의 수가 6개로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는 보이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도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도 15세기 중기에서 16세기에 이르도록 '-드이'보다는 '-도이'가 우세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듭/드외-'가 '-드외-', 나아가 '-도외-'로 단일화되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향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도외-}로 형태가 굳어지면 여기에 다시 '- | '가 결합한 파생부사는 '○○도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외-'는 후행하는 원순모음에 의해 1음절이 원순모음화를 겪은 어형이고, '-도이'는 '��'이 비음운화하면서 원순모음화를 겪은 어형으로서, 서로 발달의 경로는 다르지만, 결국 다시 파생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¹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근'계는 이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듭-'과는 달리 '-롭-'은 어형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으나 순자음의 영향을 받아 '-롭-'의 형태로서 15세기 후기에 이미 상당수가 나타난다. 그러나 '-롭-'의 출현이 그대로 '-롭/로오-'의 출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5세기 후기의 '-로오-'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16세기에 들어서면 '-로외/로외-'보다는 '-롭/로오-'가 훨씬 많은 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소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듭-}이 결합하던 어기에 결합하면서 {-듭-}의 후대형으로서 등장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공통의 어기에 결합한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17) 范로외니<두초16:51> | 고로외<번노상13> |
| 디혜로외니는<초발46> | 디혜로와<번소6:36> |
| 샹세로인<육자 25> | 祥瑞로온<번소6:14> |
| 슈고로원<번박72> | 슈고로온<정속6> |
| 외로월<훈몽하14> | 외로오며 <여씨35> |

10) 하향이 중모음이 단모음화한 현대는 '○○되어'와 '○○이'가 과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요괴로이며<번소8:42>

종요로원<구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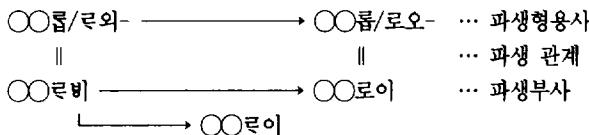
요괴로오며<여씨41>

종요로온<소언5:18>

결합하는 어기에서 뿐만 아니라 15세기의 ‘-롭/르외-’와 16세기의 ‘-롭/르외-+‘-롭/로오-’의 빈도를 비교해 보아도 이들이 {-돕-}의 후대형임을 알 수 있다.

왜 ‘-로오-’라는 이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왜 ‘ㄷ’계의 ‘-도오-’는 없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롭-’이 원순모음화된 ‘-롭-’과 파생부사 ‘-로이’로부터 모음 앞의 이형태를 유추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가능하다. ㅂ 불규칙 용언, 예를 들어 {꼽-}의 자음 앞 이형태가 /꼽/이고, 파생부사가 /고이/라는 인식이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반면 ‘ㄷ’계의 경우는 ‘-도이’는 존재했지만 ‘돕’이라는 어형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추 작용이 있을 수 없었고,¹¹⁾ 따라서 ‘-도오-’가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파생부사는 ‘-도이’와 마찬가지로 16세기로 갈수록 ‘-로이’가 지배적이다. 이 역시 {-돕-}의 이형태인 ‘-롭/르외-’와의 파생 관계에서 ‘-롭/로오-’와의 파생 관계로 전이되었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 {-돕-}이 ‘-되-’와 ‘-롭/로오-’로 변천하는 과정을 이형태의 빈도를 통해 알아 보았다. ‘-돕/드외-’가

11) ‘-돕-’ 자체가 워낙 발견되지 않는다는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돕-’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단지 있었다고 해도 매우 수가 적어 유추 작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다.

'-되-'로 단일화되어 가고 있음은 중세국어 전체적으로 '-돕-'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롭/르와-'가 '-롭/로오-'로 변화하는 것은 '-롭/르와-'의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롭/로오-'가 새로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돕-}의 변천과 더불어 파생부사와의 파생 관계도 바뀌었음을 살펴 보았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전산화된 자료를 다룸에 있어서 이미 주장된 또는 통설화되어 있는 견해를 전산, 통계적인 처리로써 증명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이는 일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물론 본고는 본격적인 뭉치 언어학(*corpus linguistics*)을 견지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중세국어 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형태소 분석을 할 수는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형태소 분석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우선 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이에 다시 수작업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제재인 {-돕-}은 이에 적격한 형태소라 생각된다. 그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수작업의 수고를 그만큼 덜 수도 있고, 빤도 가 역사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작업의 면밀성이나 통계학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음을 인정한다. 관심과 지적을 통해 이와 같은 접근이 활발해지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 출판부.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김완진(1974), <음운변화와 음소의 분포>, 『진단학보』 38.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노대규(1981), <국어 접미사 '답'의 의미연구>, 『한글』 172.
- 민현식(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 석주연(1995), <근대국어 파생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132.
- _____ (1996), <중세국어 원순성동화 현상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1.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신석환(1981), <{듭}계 파생어류 연구>, 『선청어문』 11.
- 안병희(1978), 『십오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양정호(1991), <중세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105.
- 윤동원(1986), <형용사파생 접미사 {-스럽-}, {-롭-}, {-답-}의 연구>, 『국어국
문학 논문집』 23(서울대 사범대).
- 이기문(1972a), 『개정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_____ (1972b),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승녕(1956), <*taɸi, tahi* 考-所謂 指定詞 <이다>論의 序說>, 『국어국문학』
15.
- _____ (1981), 『개정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 이현규(1982), <접미사 '-답다'의 형태, 구조, 의미 변화>, 『조규설박사 화갑기념
논총』.
- _____ (1983), <국어형태구조의 사적 연구>, 『어문학』 43(한국어문학회).
- 허 용(1975), 『우리 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생문화사.